

鐘 小 銘 未 己

一九五六年三月全
北 錦山郡 錦城面 花
林里에서 出土되었
다. 通式으로서 龍鈕
甬筒이 있고 上緣에
는 立狀蓮花紋帶가
있으며 廣幅의 上·
下帶에는 花紋이 彫
刻되었다. 乳廓四區
各九乳이며 그 間地
鐘腹에는 圓形蓮花
撞座와 菩薩坐像 各
二가 交代하였다. 鐘
腹이 過大하고 彫刻
은 纖細한데 年代는

(9) 錦山花林里 出
土中鐘(無銘)
國立博物館扶餘分
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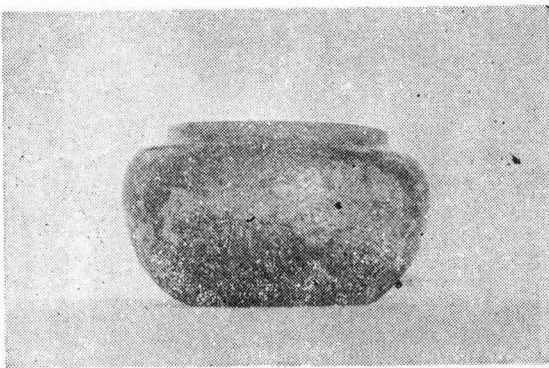
고 以下 「施主戶長
信善」外 八名이 보
인다. 現高 一尺九
寸八分 口徑一尺九
寸三分이다. 이 鐘
에 對하여서는 「東國
史學」第五輯에 圖版
과 더불어 紹介하였
다.

慶州 皇龍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舍利盒을 最近에 市井에서
過眼할 機會가 있어
매우 貴重한 資料임
으로 紹介하여 둔다.
높이 四·三cm,
胴徑 七cm, 口徑 四·
九cm로 蓋를 缺하고
있다. 底部에는 鼎
足이 있던 자리만 있
고 다리는 逸失되었
다. 外面에는 處處
에 鍍金하였던 痕跡
이 남아 있고 全面
에 紋樣이 銳利하게
陰刻되었다. 胴部에
는 花卉가운데 飛翔
하는 禽鳥 一雙이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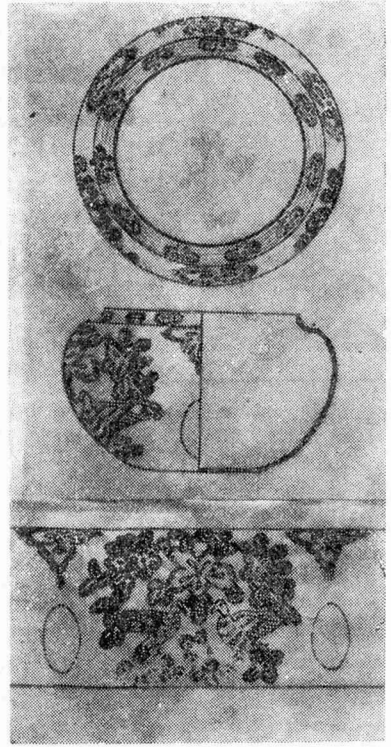
銀製 鍍金 舍利盒

秦 弘 燮

中期以後로 推定되었다. 高 四二cm, 上徑 一九·五cm, 下徑 三〇·二cm,
(10) 錦山面 馬首里 出土小鐘(無銘) 國立博物館扶餘分館藏
一九五七年五月(9)의 出土地點과 十里相距인 錦城面 馬首里에서 盧榮
一氏에 의하여 發見되었다. 크기는 (9)의 約半이며 樣式은 類似하나 彫
法은 粗略하다. 四乳廓 間地의 鐘腹에는 蓮花撞座와 天人坐像 各二가
交代로 配置되었다. 總高 九寸一分, 下徑 五寸三分이다. 이 鐘에 對하
여서는 洪思俊氏의 報文이 圖版拓影과 같이 「한글일보」(一九五七年 六
月二十四日) 掲載되었다.



銀製 舍利盒



大圖實測舍利盒製銀

對한 모양이 다리와 다리사이에 同一하게 세 곳에 陰刻되었다. 그 사이 卽 다리 위에 肩部에 걸쳐 三角形의 花卉가 있고 肩部와 口 周圍에도 小 花朵를 羅列하였다.

全體가 鏡面 鍍化되기는 하였으나 器形이 아름다우며 紋樣亦 優麗하다. 果然 皇龍寺址에서 出土된 것인지는 證明할 길이 없으나 器形이나 彫刻手法는 統一을 前後한 新羅作으로 보이며 일찌기 이와같은 舍利盒이 發見된 일이 없느니만큼 매우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公州出土의 陶棺

金 永 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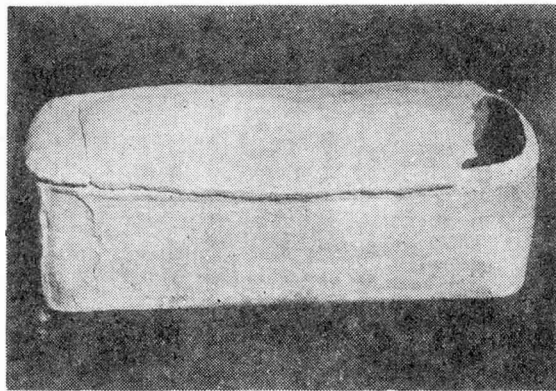
이 陶棺은 一九五七年 四月 公州郡 反浦面 馬岩里에서 花草를 採取한 人夫에 依하여 偶然히 發掘되어 花草園主의 손에 넘어간 것을 筆者의 斡旋으로 公州博物館에 옮겨 陳列한 것이다. 이 陶棺의 形態는 長方形의 네모를 들린 것으로서 內外部가 無紋으로 되어 있으며 一端이 넓고

一端이 좁아졌는데 그 遞減된 線이 아주 自然스럽다. 그리고 이 棺은 두께와 밑쪽으로 되어 있는데 밑쪽에 約一·五cm의 口緣을若干 內部로 들어가게 만들어 두께를 덮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棺은 그 土質로 보아 百濟土器中에서도 上代에 屬하는 것이며 이런 模樣의 陶棺은 公州近處에서 처음 發見된 것으로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그런데 이 棺의 크기로 보아 小兒의 棺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小兒를 爲해서 特別히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마 必是 骨棺의 一種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發掘當時 아까울게도 두께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다.

棺의 크기

外部全長 六八·五cm
幅(廣部) 二八·五cm
蓋 殘存部長 六一·五cm

高 一九·五cm
幅(狹部) 二六·五cm



公州郡 反浦面 馬岩里 出土 陶棺